

3월의 안테나

盧永翰
(본지 편집국장)

미국 가금 인플루엔자 피해 극심

이번 미국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개최된 가금박람회 참석자들에 의하면 금년에 미국에서 양계장 견학이 특히 어려웠던 점을 말하고 있다. 이는 가금인플루엔자 때문이다.

미농무성에서 우리정부에 인플루엔자 발생정보를 통보해왔고 본지에서는 이를 이미 소개한 바 있으나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미국에서 피해가 큼을 알 수 있었다.

본회 신흥종부회장(고창양계)에 의하면 양계장 견학이 거의 불가능함은 물론이려니와 인플루엔자 피해로 계란값과 닭고기값이 상승할 정도라고 한다. 강홍렬사장(한국원종농장)도 1월 22일 현재 950만수가 이 질병으로 폐사한 것으로 집계 발표되었다고 했는데 이를 내역별로 보면 산란계 5백만수, 브로일러 3백만수, 종계(PS, GPS) 20만수, 칠면조 1백만수 등으로 되어 있다.

펜실바니아주를 위주로 하여 뉴욕, 매사추세츠 등지에서 발병한 가금인플루엔자는 H₅N₂형 바이러스가 병원체이며 백신은 있으나 별 효

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열이 특징으로 폐사율은 80%에 달하며 회복된 20%도 경제적 가치가 없어지는 무서운 질병이다.

미국처럼 넓은 지역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처럼 밀집단지화된 곳에서는 방역이 더욱 어려워라 생각된다. 펜실바니아에서는 일체의 닭 이동이 금지되어 이곳 육종회사들은 종계를 수출할 수도 없게 되었다.

아 물론 대부분의 종계를 미국에서 수입하는 우리로서는 82년의 ILT경험을 살려 국제방역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ILT가 어떠한 경로로 우리나라에 상륙하였는지 밝혀지지 않아 인플루엔자도 언제 어떻게 상륙할지 불안하기만 하다. 농수산부는 2월에 ILT, ND 등의 발생정보도 발효중이어서 방역비상상태이다.



이러한 중에도 다행한 것은 본회가 작년부터 가축위생연구소(소장 설동섭박사) 계역과와 협조하여 계군혈청검사를 실시하여 한정된 농장이지만 이들 농장의 방역을 과학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점이다. 계군혈청검사는 본회 외에도 수개소에서 실시중이거나 계획중이어서 가까운 시일내에 전 양계농가에 실시되기를 바라며 방역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하며 이제는 나혼자 방역을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협회를 중심으로 단합해서 과학적인 공동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86년엔 닭고기도 수입된다

정부는 금년부터 88년까지의 수입자유화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수입예시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어 수입자유화품목을 사전에 예시하여 기업이 미리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에 의하면 수입자유화율이 83년말 80.3%에서 86년에는 선진국 수준인(90%) 91.6%로 높여놓고 88년에는 95.2%가 되어 CCCN 8단위기준 총 7,915개 품목 가운데 379개를 제외한 전품목을 자유화한다는 계획이다.

금년 7월부터 옥수수 및 쌀, 콩의 껍질과 밀기울이 자유화되고 내년에는 대두유박 밀가루 등이, 86년에는 사료용 수수, 호밀외에 닭고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육류가 수입자유화되게 된다. 물론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수입부과금제도 등으로 농어민을 보호한다고는 하나 축산물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아직 구체적대안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86년에는 국민 1인당 GNP가 2,226\$에 이르고 88년에는 2,500\$선에 올라 육류수요도 상당히 증가되리라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앞으로 2년후에 우리가 얼마나 국제경쟁력을 갖게 될지는 의문이 아닐수 없다.

그간 우리의 브로일러산업은 영세하여 생산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료의 외상구매에 의존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사료용 곡물구매 제도가 바뀌어감에 따라 배합사료도 현찰거래로 되어가고 있으며 50%를 차지하는 서울경기지역의 비닐계사 철거에 따라 육계값이 높아도 입식들을 못하고 있는 형편으로 2년후 국제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브로일러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



배합사료의 품질문제

작년 11월 배합사료가격이 인상된 후 배합사료가격의 인상폭보다는 오히려 품질쪽에 양축가들의 불만이 많았다.

현재 우리가 사육하고 있는 닭들은 고도로 개량된 닭들이기 때문에 그 닭에 맞는 사양관리를 하여야함은 물론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욱 민감한 반응이 오기 때문에 양계업자들은 사료품질에 여간 신경을 쏟는 것이 아니다.

그간 사료곡물을 비롯한 원료가 품질과 가격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왔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축산업계가 그런대로 좋은 경기를 유지할 수 있었었다. 그러나 작년 후반기부터 원료의 다변화 정책으로 품질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였다. 당초 의도는 훌륭하였지만 실제 운용에 있어 처음 의도대로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80% 이상의 배합사료원료를 수입에 의존하여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실제 국내 구매창구인 사료협회나 축협에서 구매단계에서부터 원료곡물의 비율을 맞추어 수입하지 않으면 사료공장에서의 재량권이 적기 때문에 사료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옥수수 60%에 기타 곡물 40%의 비율로 사료곡물수급계획을 세웠으면 연중 이러한 비율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입구매를 하여야지 수수나 호밀을 1월부터 4월까지, 그 이후는 옥수수를 하는 식으로 하면 문제이다.



이는 가설적인 예에 불과하지만 만일 수입과정에서 정부의 단순한 권장사항을 의무사항인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이며 더욱 양계와 같이 사료품질에 민감한 품목은 더욱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양계협회에서는 그동안 회원들로부터 품질문제에 대한 많은 항의를 접하고 사료협회 및 축협에 이에 대한 건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사료협회에서도 즉각 회원공장에 이러한 양축가들의 뜻을 전달하고 앞으로 양계사료에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회신이 있었음은 다행한 일이며 앞으로 양축가들은 사료공장들이 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4월부터는 국산보리를 사용하게 될것이라 하는데 이에대한 사료공장의 충분한 기술적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고 값싼원료 구매를 반대할 양축가가 어디 있으랴만 값에 비례하여 품질이나쁜 것을 다량 사용하여 생산성이 떨어지면 전국적으로 양계업자의 손실은 사료가격이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크며, 한번 피해로 회복이얼마나 어려운가를 생각할 때 원료구매에 더욱 신중을 기해주어야 하겠다.

양계장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